

# 도둑에게 호소문 내건 멕시코 자영업자



반복되는 절도 피해에 지친 멕시코의 자영업자가 도둑에게 보낸 호소문이 화제이다.

멕시코 중북부 토레온에서 '빅토리아 사커'라

는 풋살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자영업자는 최근 자신의 사업장에 '존경하는 도둑님에게'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커다란 호소문을 내걸었다. (사진)

이 호소문에는 "도둑님이 제 사업장에 몰래 들어와 물건을 훔쳐간 게 4개월 동안 벌써 4번이다. 도둑님이 행실을 고치진 않을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부탁하고 싶은 건 문은 부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보다 부수 놓은 문을 고치는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이다.

호소문에는 또 "(메모를 주면) 도둑님을 위해 마실 음료수와 원하는 물건을 풋살경기장 밖에 내놓겠다. 이렇게 상부상조(?)하면 "당신도 고생을 털 수 있을 것"이라며 원하는 물건이 있다면 아예 순순히 내주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것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 호소문의 진짜 수취인은 경찰이라고 입을 모은다. 호소문은 "도둑님 당신도 잘 알고 있겠지만 어차피 토레온의 경찰은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는다."로 끝맺음했다.

시민들은 "무능한경찰이 게으르기까지 하다."며 "경찰이 도둑과 한통속이다."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풋살경기장 주인은 경찰이 요구하는 '협조비'를 거부하면서 도둑을 맞기 시작했다. 경찰이 매월 '협조비' 명목으로 지역 상인들에게 요구하는 100페소를 주지 않자 도둑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토레온의 시장 호르헤 세르메뇨는 "주인의 편지는 공권력을 조롱한 것"이라며 격분했다.

# 30만 마리 박쥐 때문에 호주 마을 비상 사태

호주의 한 마을에 30만 마리의 박쥐가 몰려들어 응급환자를 실은 비상 헬리콥터가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등교거부를 하는 등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호주 퀸즐랜드주 잉엄이란 마을에는 최근 30만 마리의 박쥐들이 몰려들었다. 이 박쥐들은 '날으는 여우' (Flying Fox·사진)라는 이름을 가진 박쥐들로 날개를 펴면 1.5m가 되는 큰 박쥐들이다.



지난 23일 잉엄병원의 응급 구조 헬리콥터는 환자 한 명을 이송 중이었다. 그러나 병원 상공을 뒤덮은 박쥐떼들 때문에 도저히 병원 헬기장에 내릴 수가 없었다. 결국 헬리콥터는 환자를 싣고 다른 비행장에 내려 환자를 다시 병원으로 이송해야만 했다. 다행히 환자는 응급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박쥐들은 생활 터전인 숲속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도시 안으로까지 이동한 상태이다. 박쥐들이 새로 서식지를 삼은 곳은 그동안 방학으로 문을 닫았던 유치원과 학교로



방학이 끝나고 등교한 학생들은 학교 내 나무와 건물에 거꾸로 매달려 잠을 자고 있는 수십만 마리의 박쥐떼들 때문에 공포를 느껴야만 했다. 결국 부모들은 박쥐가 있는 위험한 학교에는 자녀들을 보낼 수 없다고 등교 거부까지 일어난 상태이다.

야생동물 보호 전문가인 아만다 라이트는 "지역사회가 불안해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재의 문제는 토박이 박쥐와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다른 박쥐가 함께 모이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4월 경이 되어 박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는 직원을 상주시켜 박쥐들의 활동을 모니터 하며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다.

# 카플레인 달리려 조수석에 '가짜 해골' 태운 운전자

애리조나주의 한 도로에서 조수석에 '가짜 해골'을 태우고 다인승 차량 전용차선(카플레인)을 달리던 운전자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3일 애리조나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피닉스의 한 다인승 차량 전용차선인 HOV(High Occupancy Vehicle)에서 조수석에 분명 누군가 앉아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사람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 자동차 한대를 목격했다. 차량을 멈춰 세우고 검문을 시작한 순찰대는 조수석에서 모자를 뒤집어쓴 해골 모양을 발견했다.

순찰대 측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해골을 태우면 HOV 차선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라며 해당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운전자는 해골 모양에 모자를 씌운 뒤 조수석에 노끈으로 묶어 동승자인 양 은폐했다. 그러나 눈썰미 좋은 순찰

대의 감시망은 피해갈 수 없었다. 이 운전자가 최대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순찰대 측은 전했다.

HOV차선은 최소 2인 이상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차량정체를 피해 전용차선을 이용하려 꼼수를 부린 사례가 심심찮게 적발된다.

애리조나주 당국에 따르면 매년 7,000명의 운전자가 전용차선 규칙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도 야구모자와 선글라스, 스웨터를 착용시킨 마네킹을 조수석에 태우고 다인승 차선을 달리던 운전자가 순찰대 감시망에 걸려 벌금을 물었다. 당시 운전자는 마네킹에 안전띠까지 착용시키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9월에는 워싱턴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모자와 선글라스, 점퍼로 위장한 마네킹을 태우고 전용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한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